

오치환 장로님을 그리며

지난주에 기도원에 계신 오치환 장로님께 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만사를 제치고 찾아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및 교역자분들과 함께한 환송예배로 인해 이별의 슬픔보다는 분향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송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의 송사를 읽어주실 때는 모두가 오 장로님과 이 땅에서 나눴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단 내의 어린 종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으셨던 장로님이셨기에 저 역시 장로님과 함께 나눈 추억이 적지 않았습니

다.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친 장로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같았습니다. 기도원 이곳저곳을 말 그대로 날아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기도원 내에서는 장로님께 말씀드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숙한 봉사자들과 일하실 때도 답답해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시고 늘 친절함과 위트 넘치는 멘트로 상대방을 배려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나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 수련회 준비를 갔을 때나 신학생이 되어 기도원 집회 봉사를 갔을 때나 전도사가 되어 기도원에 갔을 때나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이 계셨습니다. 그런 장로님을 생각할 때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겸손’, 그리고 ‘충성’이었습니다.

“장로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강건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도원을 못 가서 더욱 그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기도원의 장로님이 아니시고 교단의 장로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보낸 신년 인사에, “이야..., 아아아아아~ 우리 교단의 꿈과 희망, 능력의 종에게 카톡 왔다. 아하하하하~ 기분 최고다.” 라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보내주신 답장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어쩔 저렇게 겸손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겸손함이 저를 돌아보게 만들고 민망하여 바로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원집회 마지막 날 오전 대성전 정문 쪽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어린아이가 넘어져 다친 것이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펜스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오 장로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작업을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

다. 집회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모든 성도가 기도원을 떠난 뒤 피약벌이 내리찍는 그 곳에서 일하면서도 오 장로님은 인상한 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지시하신 일을 잘 마무리할까 골몰하며 일에 집

중하셨습니다.

“안네 문구로 아이들에게 주의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펜스를 만들면 야외무대로 쓸 때 시야가 가립니다.”, “다음 집회 때까지 작업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갑자기 생긴 작업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일 터인데 장로님은 일절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 한탄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둘이 작업을 하게 될 때에도 늘 예수님, 목사님께 더욱 충성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 장로님의 겸손과 충성됨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 그리움이 큰 만큼 그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장로님! 천국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승리하겠습니다. 오 장로님 같은 분이 교단 곳곳에 계십니다. 보내신 곳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치 않고 충성하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로 오직 총회장 목사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변치 않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목사님! 부디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 오 장로님도 안심하실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전도

예전에 일에만 파묻혀 살 때 딸에게 여러 번 질타 받은 적이 있다.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전도도 안 하고....”

딱히 가게에 드나드는 분이 배달기사님 뿐이라 먹거리를 돌리며 복음을 전했고, 주변상가에는 그저 밝게 인사 잘하는 정도여서 나름 산 위의 동네 역할을 하고 있잖나며 딸에게 반문했었다.

얼마 전 홀이 있는 가게로 이사를 왔다. TV 설치가 되지 않은 터라 일직선의 실내 내부 손님들의 시선은 자연히 주방으로 향했다. 고민 끝에 벽면의 빈 여백에 4개가량 목사님 말씀이 새겨진 액자를 걸기로 결심하자 딸이 더 많이 벽에 가득 걸자고 제안했다. 무릎을 ‘탁’ 쳤다. 창조적인 생각이라며 칭찬했다.

말씀 주문제작에 들어갔다. 문자로 보내신 목사님 말씀 중 13개를 액자로 만들어 벽에 붙이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식사 중 뚫어지라 말씀을 보았고,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대박 대히트였다. 단골손님들이 재차 삼차 의미 깊게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벤처기업의 수준 높은 시선들은 자연스레 가게주인인 내게 호감을 표했다.

어제는 한 중년 여인이 식사를 하는 등미는 등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래전 체육관 집회 때 목사님께 안수받고 고침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딘지 몰라 타고 교회에 안착했다 한다. ‘아! 전도만 하고 관리를 안 했구나.’ 아쉬웠다. 나도 서둘러 메뉴판 아래에 단아한 메모를 적었다. ‘유튜브 검색-예수중심교회’,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음미하며 나 또한 터질 것 같은 성령충만을 얻는다. 오늘도 나는 벽에 걸린 액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 ‘내 뜻 못 이룬 것보다 주님 뜻 못 이룬 것을 아쉬워하라.’

추성숙 집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신앙의 학년

이초석 목사님의 귀신추방 비디오에이 프를 보고 심장을 쏘아내리면서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으로 달려갔던 시간도 벌써 30년이 훌~! 지났습니

다. 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학교를 다녔으면 웬만한 대학교 박사학위는 받았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학년은 몇 학년인지 문득궁금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데 30여 년을 주님 바라기로 살아왔다고 믿는 우리는 천성에 이르는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요?

매일 기도를 거의 수십 년 하고, 성경 통독도 몇 번 한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거의 외울 만큼 뇌리에 각인되어있지만, 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면 크리스천의 향기는 고사하고 세상 사

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유구무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품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는 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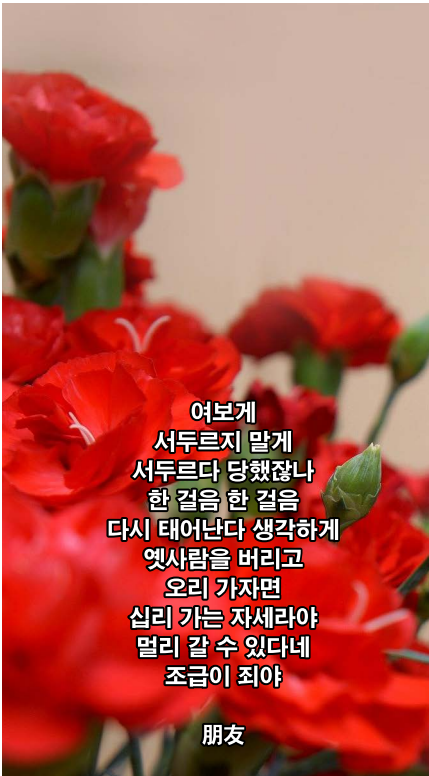
다. 며칠 전 정수기가 고장 나서 AS를 신청하고, 기사님과 시간 조율이 실패한 후 기사님께 짜증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회사 제품을 반품 요청하는 모습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어떤 향기도 품고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

다. ‘생활 가운데 나의 행실이 분이 되어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라는 기도는 20년이 넘었지만, 오늘도 AS기사님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따지고 이것저것 지적질하는 모습에 주님께서 눈을 감으실까 걱정입니다. 청소하는 청년의 지각에 화가 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불편하고, 급기

야 어머니의 모습을 마땅찮음으로 바라보는 제 신앙의 학년은 몇 학년일까요?

천성에 이르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주님을 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것 같은데 좁은 문 입구에서만 십수 년 서성거리는 신앙 열등생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멀리 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동냥 설교 말씀이 영혼의 채찍이 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지면 조금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요?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기도하면 항상 가까이서 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0.00001학년씩 성장해갑니다. 품어 안고 천성에 이르도록 함께하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자유 집사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명작

인생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다. 평생 어떤 그림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그린 그림은 명작인가, 졸작인가! 그 판단은 후대의 몫이다. 피카소나 고흐 같은 명작들도 살아 있을 때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후에 후대가 그들의 그림을 명작이라고 평가했고, 그의 작품들은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지금은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지난주에 소천한 오치환 장로가 그린 그림은 명작이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그린 작품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가 가고 나니 그가 그린 그림이 명작이었음을, 그의 삶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고, 어디에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으며, 선(善)이 몸에 밴 사람이었고, 하늘의 소망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작품을 보며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다.

사람들은 지금 알아주기를 바란다. 지금 내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그래서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애쓴다. 그러나 명작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법,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성실과 충성을 다해보자. 오치환 장로처럼.

장례식장에 가면 그의 인생이 보인다고 했다. 전국에서 몰려든 교역자들과 성도들, 뻥뻥한 조화... 나는 오 장로의 장례식장을 보면서 '그가 참 잘 살았구나, 그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명품인생을 살다 간 오치환 장로를 본받아 우리도 인생의 명작을 남겨보자!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얼마나 그리웠던 곳인가. 이렇게 몇 시간이면 달려올 수 있는데, 무려 3년 동안 올 수 없었으니 그 안타까움을 어찌 말로 형용할까.

5월의 기도원은 푸르름이 병풍을 친 듯 둘러 아름다웠고, 코끝에 와 닿는 공기는 달콤하기까지 했다. 하얗고 뽀족한 텐트가 대성전 앞 잔디밭을 가득 메워 장관이었고, 중앙공원에는 멋진 야외식당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 모두 얼마 전 천국에 입성한 오치환 장로님의 아이디어요, 작품이다. 우리가 그의 흔적 속에서 슬픔 대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 는 것은 그것이 먼저 간 오 장로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라는 뜻이다. 곧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말에는 이렇듯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창1:27).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우리의 말로 인생을 묶을 수도, 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나안을 탐지하러 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그들은 메

를 생각해보라. 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한 강도는 단 한 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한 강도도 말 한 마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라고 해서 지옥에 떨어졌다. 말로 인생길이 갈린다.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 다 말에 달려 있다. 그러니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혹시 그동안 말을 잘못했는가? 그렇다면 지우개로 지워라. 예수의 보혈로 지워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뤄주시니(민14:28)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내가 손대는 것



2년 반만에 재개된 기도원 춘계산상집회(2022년 5월 9일~1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4박5일 동안 진행된 춘계산상집회의 첫 예배시간, 한 시간이 넘는 통성기도로 묵은 지경을 씻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잠들고, 굳어진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어졌다. 9시에 단에 오르신 총회장 목사님은 첫 메시지로 '말의 권세'에 대해 설교하셨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창1:6~7)고 말씀하고 있

두기 신세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뿌려 그들을 먹여 치우고 가나안에 입성했다.

내 인생은 내 생각 속의 말이 만드는 작품이다. 다윗은 처참한 지경에서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6)라고 말했다. 어두움의 시절이 가고 그는 말년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마다 잘 된다.', '우리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뿌려라. 인천의 어느 장로 부부는 '부부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도원에 오는 동안에도 22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했다. 말이 가정을 천국으로,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이 결과다(렘6:19). 다시 말하지만, 가시나무를 심고 절대 아름다운 꽃을 거둘 수 없음을 알라."

예배 후, 목사님은 병자들을 단에 올려 일일이 안수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원에 가득했다. 신묘수 전도사



기도원 야외식당: 오치환 장로님의 아이디어 작품이다



우리들의 성산 예루살렘기도원



병자들을 안수해주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2:39~46)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뿐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세의 축복뿐 아니라 이 땅의 문제,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지금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죽음 다음의 천국을 논한다면 그 천국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지옥이 이보다 더하겠어? 그럴 능력 있으면 지금 나 좀 살려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2/3 동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먼저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신 후에 ‘현존하는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은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잘 살아 보려고 밤잠 안자고 일도 해봤고, 안 먹고 안 쓰며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학원도 보내고, 기러기 신세가 되면서도 유학도 보내보았고, 사업 좀 키워보겠다고 이리 저리 뛰며 무던히 애써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됩니까? 아니요, 갈수록 ‘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도와 달라,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러겠지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른 줄 압니까? 저들은 이 땅에서 고행하며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가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 생활한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솔직히 당장 내일 애들 등록금이 없는데, ‘세계 평화’나 ‘구원’의 기도가 나오니까? 가식이지요. “아버지, 내일 애들 등록 마 감입니다. 안 주시면 애들 학교 못 다녀요. 돈 주세요. 돈이요 돈!” 이것이 진실

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전들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왜 가랑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왕상18:42)?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지요. 하같이 방성대곡하며 기도한 것도 당장 아들이 목말라 죽게 되어서고요(창21:16),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한 것도 자기 민족이 멸절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학처럼 비둘기처럼 사무치게 울면서 기도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이 병에서 낫고자 함이었습니(사38:14). 다윗이 침상

을 적시며 왜 기도했느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 받을까봐 그런 겁니다(시6:6).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질 능력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히5:7).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급한데, 방법이 없는데 왜 안 구합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고, 가난한 거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23~24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안 해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는 겁니다.

또 시편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존자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엡6:18),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존자의 뜻대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

늘에 서 인

도 하여 내시고 그 엷은 줄을 꿰

시고’(시107:14), ‘눗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고’(시107:16),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시107:20)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단헌던 하늘을 열었고, 하같은 눈이 밝아져 옆에 평평 솟는 샘물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아들인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받았으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켜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부림절을 맞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찌 되었나요?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주셨고,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 길입니다. 광야에서는 모

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고기가 없을 때도, 물이 없을 때도, 적들에게 길이 막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렘33:3). 때로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십시오(마6:6).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시126:5), 감사로 기도하십시오(빌4: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십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마4:2). 그리고 예수님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막1:35).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이르러 저녁에 기도하셨고(눅5:16),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고(마14:23),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눅22:44).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자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눅23:34).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저 역시 기도의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해외선교팀원인 한은택 목사가 교회 신문 칼럼란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나가보면 목사님은 일찍 주무시지도 않지만,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요, 새벽같이 이른 시간에도 그 기도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저녁 집회를 앞두고도 또 기도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집회 때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의 힘임을 알 수 있다.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면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방처럼 깨끗하다. 침대 시트조차 걸지 않고 주무시는지 침대와 침대 밑에 깔린 겹쳐진 타월에 선명하게 찍힌 두 무릎 자국이 보일 뿐이다. 목사님의 오늘은 바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으면서도 38년을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는 방법(벧전4:7), 만사형통의 길,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눅22:46).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1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름다운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이들 에게 대한 올바른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 나라 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조기교 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아기부터 교육과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막 연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여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인교육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이 평생 지속되므로 신앙 교육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 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제자 디 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 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 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연소한 나이에 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것이 습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술을 마시는 습 관이 있는 사람은 술집으로 달려가고, 기 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 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이 나쁜 사람을 만 들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마땅 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어 좋은 습관이 체

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이고 참된 교육입니다.

아이를 억박지르며 큰소리를 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좋은 교육은 말로써 하 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서 배우고 따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 장에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 고 대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며 친히 섬김의 도를 몸소 실천하신 것처 럼, 부모들도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 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의 미 래의 모습입니다.

혼기가 지난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 려고 하는 것은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결 혼생활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아버지 험담 을 밥 먹듯이 해대는데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이 생겨나겠습니까? 나쁜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 으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된 삶을 통하 여 바른생활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의 자녀교육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이 맡 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 신앙논객 ::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격 해제되면서 요즘 우리 교단과 교회에 전 에 없던 생기가 돌고 있다. 춘계산상집회 를 시작으로 청소년 수련회와 어린이 성 경캠프까지 논의가 오가는 것을 보자니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또 개인적으로는 올해 7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신학교가 주 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운영되고 있어 더욱 감사할 따름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계신 것처럼, 그분의 몸 된 교회도 계속 살아 움직여야 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 고 말씀하셨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코로나 끝 나면 전 세계로 다시 나가겠다, 장로 장 립과 직분자 임직식을 하겠다, 시청 광 장에서 기도성회를 하겠다 하시는 이유 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며 땀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시는 것이다.

목표가 없는 삶은 부평초와 같다. 내 인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 던 시기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듬해 신학 교에 입학하기까지의 6개월간이었다. 무 엇을 어디서부터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였 다. 괜히 동네 도서관에 앉아 시간을 보 냈고, 동네를 배회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변에서 나에게 눈빛 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서 울 대학부 담당 전도사와 신학원 학생처 장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와 설교 준 비, 교육 준비, 강의 준비, 기타 여러 일 처리 등으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 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할 일이 많으니 까 내 영·혼·육이 더욱 살아나고 있는 게 스스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목 사님께서 40년 가까이 그 흔한 안식년도 없이 달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는 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행동하여 하나님 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이 되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 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7).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겨자씨만 한 믿음 ::

죄를 전가하지 마라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 악과를 먹고 부끄러워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 매를 왜 먹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 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 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 다”(창3:12-13).

말인즉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여자는 뱀 때문 이라고 했다.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여 서인지 몰라도 우리도 남 탓을 하면서 자 신의 죄를 무마하려고 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꾀

뚫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꾀뚫고 있다.

사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드 러내고 회개해야 한다. 사울처럼 숨기면 대가를 치르게 되나 다윗처럼 죄를 고하 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 아담이 ‘제 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인 간은 여전히 에덴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감추면 의사가 치료 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타인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긴다면 죄를 용서 받을 길도 없다. 죄진 일이 있다면 주께 회개하고 잘못된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정결함을 회복하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 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 김을 받으리라”(잠28:13).

김성일 집사

cre8tor@naver.com



:: 생명의 말씀 ::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오늘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나라 젊은이들보다 자유분방하다고 한 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유를 허 용하기 때문이란다. 지난 이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 때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 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 줄 나 라가 생겼고, 국가의 보호 속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기성세대의 관용의 결 과라 생각한다.

자유는 그 자유를 보장해 줄 울타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울타리가 없으면 진 정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망가지고 무너진다. 가 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건강하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다. 힘이 있는 국 가의 국민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자유 롭다.

우리에게는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사회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어 보 호를 받는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하 나의 울타리가 있다. 그 울타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모의 간 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국가의 통 제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

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서 벗어나 려 한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을 보호해 줄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가 어리석 은 자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망가지고 말았다. 언제 회복이 가 능했었나?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모 든 것이 회복되었고, 사람다운 삶을 다 시 살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 한 삶’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통 제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고 결국 멸 망의 길로 가게 된다.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의 현실이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 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시14: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다. “하나님이 없 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시14:1)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자. 무릇 지혜로 운 자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 는 자라 확신한다.

임택할 목사